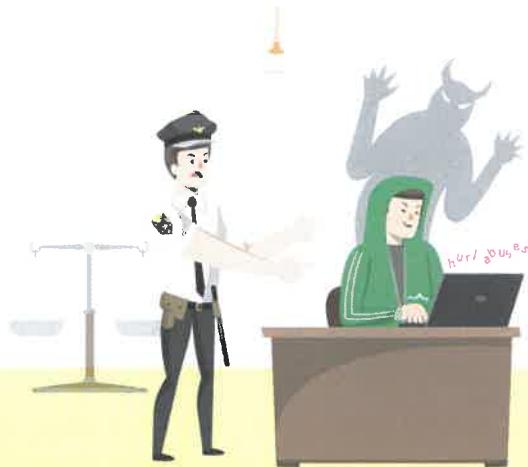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가 뭐예요?

- 성범죄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말해요.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요.
- 이런 행동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말하기도 해요.



디지털 성범죄는 뭐예요?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SNS 등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성범죄자'라고 부르죠.
-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 게시하면 안 돼요.
-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궁금한 점들이 생기나요? 그럼 우리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Q.1

장난으로 옷 갈아입는 친구 사진을 찍었어요.
장난은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랍니다.

몰래 사진 찍힌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요? 몰카에 찍힌 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사진이 또 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은 분명한 범죄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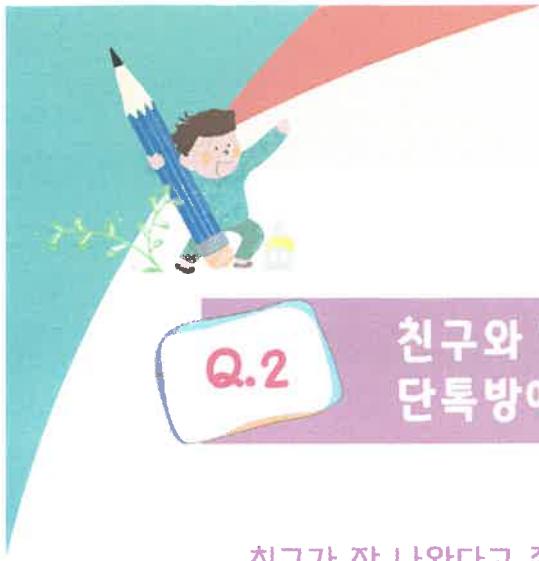
<부모님께 드리는 TIP>

발등에 거울을 올려놓고 친구나 선생님의 치마 속을 훔쳐보거나 여학생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저 장난으로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친구 사이라도, 장난이라도 불법촬영은 이제 사소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치마 속, 허벅지나 다리 부위 전체, 배,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위, 나체뿐만 아니라 수영복, 레깅스 등 얇은 옷을 입은 모습,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 등을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 안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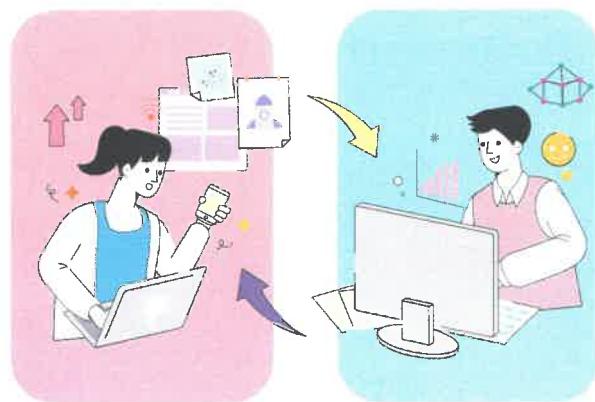
친구가 잘 나왔다고 좋아한 사진이고,
단톡방에 친한 친구들만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찍을 때 친구가 동의했더라도
단톡방에 공유하려면 다시 동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사진이 부끄럽거나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친구가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사진을 공유하는 순간 이미 다른 친구들이 봤으니 엉칠러진 물이죠. 또
다른 곳에 공유하여 전달된다면 돌이키기 힘들 거예요.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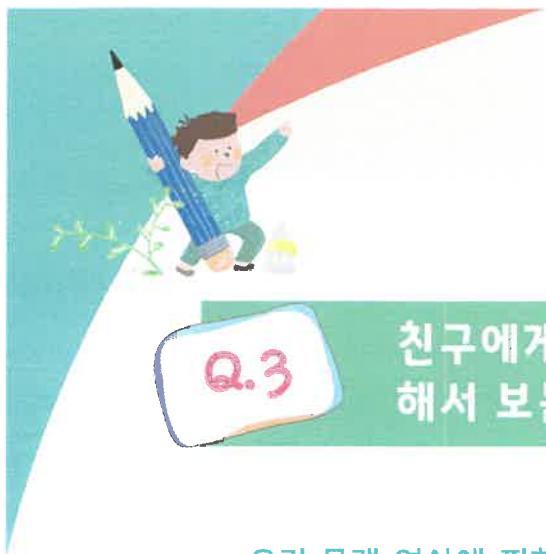


<부모님께 드리는 TIP>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SNS에 공유할 때 동의를 구해보세요!

아이들이 사진(영상) 촬영 및 공유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 및 재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14조 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친구에게 받은 몰카 영상을 혼자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은 괜찮겠죠?

우리 몰래 영상에 찍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누군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체를 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예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님께 드리는 TIP>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것을 올린 사람이 전체 공개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약칭)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Q.4

어린 초등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러분같이 어린 초등학생도 실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 A양이 있었는데

아이템을 사기 위해 문화상품권이 필요했지만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께 지적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A양은 온라인에서 공짜로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글을 보고 고민하다가 연락했어요. 어떤 남성이 초등학생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 인증을 위해 알림장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알림장에는 A양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후 그 남성은 부모님과 카톡 친구들에게 게임 중독임을 알린다고 하면서 A양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내야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협박했어요.

A양이 거절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친한 친구를 욕하는 게시물을 A양의 이름으로 올렸고, A양에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 자신의 말대로 하라며 더욱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초등학생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최근 'n번방 사건'(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많은 충격을 안겨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Q.5

어떤 식으로 피해자가 되나요?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사례 1) A는 메신저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너 진짜 A 맞아? 네가 너 인걸 증명해봐”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아이디와 셀카를 보냈어요. 그러자 남성이 돌변하여 A의 사진을 알몸 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사례 2) A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과 링크가 있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링크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니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고 협박이 시작되었어요.

(사례 3) A는 랜덤채팅방에서 ‘동갑 여자’라고 소개한 사람과 친해져서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줬어요. 그러자 상대방에게 프로필 사진과 알몸 사진을 합성하여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여자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답니다.



Q.6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온라인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도움을 준다면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의심하세요.

내가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주고 받는 대화나 사진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도 해요.
개인정보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학교, 사는 곳, 휴대폰번호, SNS ID와 비밀번호 등을 말해요.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한 비밀이니 잘 관리해야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평소 아이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택배 박스의 송장을 제거하여 분리수거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휴대폰이나 SNS 등에 보안 설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